



소식지 3호

2023년 6월 19일 가말돌리

친애하는 수녀님들, 초기 양성자, 스승예수의 벗 그리고 바오로가족 협력자와 바오로가족 회원 여러분...

우리 총회 여정 중반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쁜 나날을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문화로 엮어진 총회의원들은 서로 다른 언어의 바벨탑 안에서도 일치룰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마치 항상 함께 살았던 것 같기만 합니다.



6월 14일, 총회의 새로운 여정으로 «조명의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예정한 이 단계에서 첫 날은 살레시오회, 마리오 오스카 라노스 (Mario Oscar Llanos) 신부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살레시안 대학의 교수이고, 교육학과 성소사목을 전공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오늘날 통합 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기 위한 통합 양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기 위한 통합 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질문에서부터 출발한 마리오 신부님은 중간 중간 나눔을 하면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인들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함께 뛰놀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나의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은가요? 나는 무엇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 가나요? 하느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에 바탕을 둔 사회를 위해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조명의 단계 둘째 날은 특별히 바오로인의 색깔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부총장인 보구스와프 제만 (Bogusław Zeman) 신부님은 «바오로가족의 사명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강의 주제로 총회 작업을 동반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주제는 사명의 현실 뿐만 아니라 바오로 가족의 정체성 자체를 건드린 만큼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오로가족»이라고 부르고, «바오로가족»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오로인의 카리스마가 지닌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보구스와프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상호보완성»이라는 단어를 숙고하도록 초대한 다음, 바오로 가족의 역사에서,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사명 안에서 바오로 가족의 상호보완성의 특징을 찾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창세기 2,23 절에 «너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나의 사명을 살고 완수하기 위해 나는 네가 필요하다.»를 인용한 그의 깨달음과 바램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6 월 16 일, 저희는 큰 기쁨을 안고 하루 동안 카타리나 성녀의 발자취를 따라 시에나를 방문·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나 유적지를 안내해 주신 마리아 레지나 체사라도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 중세 도시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화창한 날을 선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말돌리로 돌아왔습니다. <https://www.pddm.org/10-capitolo-generale/galleria/> 에 있는 사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지냈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일정에는 6 월 17 일과 18 일에 «의안집»을 개인적으로 읽고 심화한 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에 따라, 총회의원들은 수도회 전체와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 오늘날 사회와 피조물, 도전과 획기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식별하는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손에 들고 작업하는 의안집은 수도회 모든 공동체 작업의 결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 10 차 총회 준비 위원회가 지역구의 모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제는 밝게 빛나는 아침 별이 되어 총회 식별 여정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노드 여정에서 배운 영적인 대화를 식별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위에 내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지혜롭게 알려 주신 소명을 찾아내고, 복음의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의 여제자·사도가 되기 위해 만남의 아름다움을 살고, 오늘날 세상을 향한 파견의 기쁨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총장과 평의원 선출을 위한 식별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교 안에서

홍보분과

마리아 데라 파스 까르보나리, 엠마누엘라 비비아노 수녀

Sr. Maria de la Paz Carbonari e Sr. M. Emmanuela Viviano